

석주명이 본 제주문화 속의 몽골적 요소에 대한 재검토

윤 용 택*

국문요약

제주도는 13~14세기에 대몽골(원)제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어서 언어와 풍습 등 일부 제주문화 속에 몽골적 요소들이 남아있다. 하지만 15세기부터 600여 년 동안 제주도와 몽골은 완전히 교류가 단절되었고, 그 사이에 두 지역에서는 정치적 변화에 따른 문화변동도 있었다. 1990년 한·몽수교가 이뤄지면서 한국과 몽골 사이에 교류가 재개되었고, 그 이후 제주문화에 몽골이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나비박사로 유명한 석주명(1908~1950)은 1940년대 초에 내몽골 동부지역을 여행하고 제주도에 2년 동안 거주하면서 두 지역의 언어와 풍습을 비교 연구한 바 있다. 그는 제주도의 전통문화에 몽골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근대 이후 첫 한국인이다. 하지만 그는 전문 인문사회학자나 인류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주도와 몽골에 관련된 진술들 가운데는 오류들도 더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긴 자료들은 제주도와 몽골의 언어와 풍습을 비교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제주도의 전통문화 속에 몽골적 요소들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13~14세기 몽골문화의 흔적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제주인에게는 제주문화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중요 자료가 되고, 몽골인에게는 잃어버리고 잊힌 몽골의 전통문화와 정체성을 복원하는 데 기여할 자료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제주도, 몽골, 제주어, 몽골어, 제주문화, 몽골문화

*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제주도는 오랫동안 해안지역의 반농반어(半農半漁)와 중산간지역의 반농반목(半農半牧)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2008)에서는 제주마, 테우리, 잣성 등의 목축문화 유산들을 제주문화상징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제주도의 목축문화는 중산간 지역에 오름과 벙듸라는 목축에 적합한 초원지대가 있어서 가능했지만, 그것이 활성화되는 데는 몽골이 13~14세기에 대제국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를 지배했던 역사적 배경의 텃도 크다. 특히 제주도가 말[馬] 중심의 목축문화가 결정적으로 뿌리내리게 된 것은 유목국가인 대몽골(원)제국과 만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대몽골과 교류가 단절된 뒤에도 제주도는 중산간 초원지대에서 말을 사육하여 조정에 헌납해야 하는 가혹한 공마(貢馬)제도의 희생양이 되었다. 10소장이니 고수목마(古藪牧馬)니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도 결국 그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대몽골(원)의 입장에서 볼 때 제주도는 바닷길로 일본과 남송을 공략하기에 적합한 지정학적 요충지였고, 제주도 중산간은 동부 몽골과 유사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어서 군마를 키우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몽골(원)은 탐라를 14개 국영목장 중 하나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해상루트로 이용하였다(박원길, 2015: 2). 제주도와 몽골의 교류기간은 학자들 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¹⁾ 일반적으로 여동연합군이 삼별초 항쟁을 진압한 1273년부터 최영이 목호의 난을 진압한 1374년까지 약 100년간으로 본다. 하지만 원(元)에 뒤이어 등장한 명나라가 운남의 양왕(梁王)의 가속을 비롯한 원의 지배층들을 제주도에 유배시킴으로서 몽골인의 제주이민은 1392년까지 이어졌다(T. 테무르, 2017: 6). 이처럼 120여 년간 이어진 몽골인의 유입으로 제주도의 언어, 음식, 복식, 인종, 민속, 풍습 등에서 몽골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몽골문화가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한인들이 몽골을 여행할 수 있게 된 일제강점기 때부터이다. 당시 기록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여운형(1936)의 <몽골여행기>인데, 여운형은 1922년 1월 초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참관하기 위해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경유하며 여행했던 기록을 남겼다(오미영, 2016: 63–102). 그리고 나비 박사로 유명한 석주명은 1940년 8월에 내몽골 동북부지역에서 나비 채집여행을 한 후에

1) 제주와 몽골의 교류기간을 일부에서는 탐라성주 양호(梁浩)가 코빌라이칸을 만나러 몽골로 떠나는 1266년부터 제주도가 다시 고려에 귀속되는 1367년까지 약 100년간으로 보기도 하고(강영봉, 1999: 1; 고문자·박경윤, 2007: 18), 또 다른 이들은 양호가 코빌라이칸을 만나 비단옷을 하사받은 1267년 1월부터 대몽골(원)의 탐라지배와 목호세력의 상징과도 같은 법화사 아미타삼존불이 명나라로 떠나는 1406년 4월까지 139년간으로 보기도 한다(양해숙·박원길, 2019: 6).

「성안령, 만저우리, 하이라얼의 접류」를 발표하였고(1941c: 63–73), 당시에 보고 느꼈던 몽골문화에 대한 인상을 「몽골인의 편상」에 남겼다(1941b: 10–13). 이 기록은 수백 년 동안 잊혔던 몽골문화를 우리나라에 알리는 역할을 했고, 석주명이 제주도의 언어와 풍습에 남은 몽골적 요소들을 연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석주명은 1936년 여름에 한 달 남짓 제주도에서 나비채집 여행을 한 후 제주도의 이국적인 자연과 문화에 호감을 갖게 되었다(1937a: 150–174; 1937b: 150–174). 그 후 그는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경성제국대학 생약 연구소 제주도시험장에서 근무하면서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였다. 그 성과들이 6권의 제주도총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제주도방언집』,²⁾ 『제주도수필』,³⁾ 『제주도자료집』⁴⁾ 등에서 그가 제시한 제주도의 언어와 풍습 속에 남은 몽골적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석주명은 제주도와 몽골을 직접 현지답사하고 두 지역의 언어와 풍습을 비교 연구한 근대 이후 첫 한국인이라 할 수 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후인 1990년 한·몽수교가 맺어지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제주도의 언어와 문화에 미친 몽골의 영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어의 몽골어 차용 관계와 제주도 목축문화에 남아있는 몽골적 요소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많은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제주도에 전해진 몽골문화는 몽골의 전통과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몽골(원) 시기의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문화에 남아있는 몽골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연구 작업은 제주도 전통문화 가운데 하나인 목축문화의 형성과정과 제주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작업은 그동안 많이 변질된 몽골문화를 복원하고 몽골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비박사였던 석주명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전공자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참신성과 과감성을 가졌지만, 그만큼 잘못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그가 남긴 자료들은 우리나라가 수백 년 동안 문화교류가 단절되던 상황

2) 『濟州島方言集』은 1947년 12월 30일 서울신문사에서 발행되었으며, 제1편에서는 제주방언 7000여 어휘를 표준어와 대조해 놓았고, 제2편에서는 제주도방언을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평안도 등과 비교하여 제주방언의 독특성을 밝혔고, 제3편에서는 제주어와 관련된 어휘나 속담들을 설명하였다.

3) 『濟州島隨筆-濟州島의 自然과 人文』은 제주의 자연(기상, 해양, 지질, 식물, 동물, 곤충)과 인문(전설, 방언, 역사, 인물, 민속, 의식주, 지리, 지도, 교통, 산업, 사회, 문화 등)에 관한 사전식 종합보고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1949년 5월에 집필 완료되고, 1950년 6월에 교정 완료되어 서울신문사에서 인쇄 직전 상태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출판되지 못하고, 1968년 11월에 보진재에서 유고집으로 출판되었다.

4) 『濟州島資料集』은 제주도총서 1~5집에 없는 여러 자료들을 모은 것으로, 잡지에 기고했던 글들이 주를 이룬다. 이 책은 1950년 6월에 탈고 되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출판되지 못하다가 1971년 9월에 보진재에서 유고집으로 출판되었다.

에서 제주도와 몽골의 언어, 음식, 복식, 인종, 민속, 풍습 등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주는 기초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는 석주명이 본 제주문화 속의 몽골적 요소들을 검토하고, 그것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 석주명의 몽골에 대한 이해와 그 한계를 살펴보고, 3장에서 석주명이 제시한 제주문화에 남아있는 몽골의 유풍들을 검토하며, 4장에서 한·몽수교 이후 이뤄진 제주문화 속의 몽골적 요소에 대한 연구 성과와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석주명의 몽골 이해와 그 한계

1. 석주명의 몽골 여정

나비박사 석주명은 곤충학 분야를 넘어서 인문사회분야까지 연구했던 통합학자이고(윤용택, 2012: 151–176), 제주도 연구에 직접 뛰어들어 제주학의 선구자가 되었다(윤용택, 2012: 289–330). 그의 최종학력은 가고시마고등농림학교 농학과(농예생물전공) 졸업이지만, 민속학을 비롯한 인문사회분야에서도 폭넓은 성과를 남겼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전경수(2019: 474–477)는 가고시마고등농림학교의 필수 교육과정이었던 ‘농촌조사’를 하면서 학습한 야연(野研, field research) 내지는 야학(野學, field science)에서 찾고 있다. 당시 ‘농촌조사’는 특정 농촌지역을 직접 답사하여 지세, 지질, 기후, 교통, 인구, 토지, 농업경영상태, 주요작물, 가축, 연중행사, 명소, 풍습, 방언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종합적인 사회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학습과정은 훗날 석주명이 나비 채집여행을 마친 후 그 지역의 민속, 풍습, 언어 등에 대해서 의미있는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석주명은 1939년 봄에 만주와 북중국의 박물관과 농사시험장에 소장된 나비표본들을 우리나라 것들과 비교하기 위해 하얼빈박물관과 공주령농사시험장(公主嶺農事試驗場), 천진 북강박물원(天津北疆博物院)과 북경정생생물조사소(北京靜生生物調查所)를 방문한 바 있고(1939b: 658), 1940년 여름에 북만주와 내몽골 동북부지역으로 나비 채집여행을 하였다. 당시 그 지역은 일본제국의 실질적 지배 아래 있던 만주국(1932~1945)에 편입되어 있던 지역이었다.

석주명은 1940년 7월 관모연봉(冠帽連峰)에서 나비채집을 마치고, 8월 2일부터 18일까

지 북만주와 내몽골 동부지역에서 나비채집 여행을 하였는데 그 전후 사정을 「관모연봉산 접류채집기」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1941a: 104). 관모연봉 나비채집 여행 마지막 날 일기를 보면 “7월 30일 맑음, 오전 8시 보상 빨. 오후 2시 주을(朱乙)에 도착할 때까지 중간 중간에 채집. 이날 오후 장재순 군은 채집품을 가지고 개성으로 향하고, 나는 온보(溫堡)에서 1박하고 다음날 만주로 출발하기로 했다.”(석주명, 1941a: 107)고 기록되어 있다. 그걸 감안하면 그는 함경북도 온보에서 7월 31일 만주로 출발한 후 8월 2일부터 내몽골 동부지역에서 나비를 채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지역은 바로 직진 해인 국경전쟁을 치렀던 할호골 지역과 인접한 군사상 특수지역이고,⁵⁾ 계절적으로 나비채집하기에 다소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는 날씨가 좋아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석주명, 1941c: 63). 당시에 그는 내몽골 동부지역에서 총 6과 57종의 나비를 채집하였는데, 주요 여행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석주명의 몽골 나비관련 채집일정

8월 일	채집지	현재 위치
2	동징청(東京城)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무단장(牧丹江) 닝안(寧安市)
3	야불리전(亞布力鎮)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하얼빈(哈爾濱) 상즈(尙志市)
7	치치하얼(齊齊哈爾)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치치하얼(齊齊哈爾市)
8	하이라얼(海拉爾)	내몽골자치구 후룬베이얼(呼倫貝爾)
9 ~ 10	만저우리(滿洲里)	내몽골자치구 후룬베이얼(呼倫貝爾) * 러시아 자바이칼스크와 맞닿아 있다
11	26호부근(약2리주위)	?
12	싱안링(興安嶺)(정상까지)	내몽골자치구 후룬베이얼(呼倫貝爾) 야커스(牙克石市)
13	야루(雅魯)	내몽골자치구 후룬베이얼(呼倫貝爾)
14	자란툰(托蘭屯市)	내몽골자치구 후룬베이얼(呼倫貝爾)
15	정자툰(鄭家屯)	지린성(吉林省) 쓰핑(四平) 송랴오(雙遼市)
16	통랴오(通遼)	내몽골자치구 통랴오(通遼市)
18	유량푸(餘糧堡)	내몽골자치구 통랴오(通遼市)

5) 1939년 5~6월 일본 측이 몽골 영토 깊숙이 침입하여 일부지역을 점령하자 몽골·소련 연합군이 8월 20일 일본군을 포위 공격하여 8월 31일 일본 제6군 병력을 섬멸하고 몽골에서 축출하였다. 당시에 양측에서 13만명 병력이 참전했으며, 탱크 1천여대, 장갑차 800여대가 동원되었고, 이 전쟁에서 일본·만주군측에서 4만 8천명, 몽골·소련측에서 2만 6천명이 목숨을 잃었고, 1939년 9월 16일 양측이 정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할호골 전쟁이 끝났다(강풀가 외, 2009: 336).

석주명의 몽골 나비관련 여행지도



2. 석주명의 몽골 이해

석주명은 내몽골 동부지역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을 「몽골인의 편상」에 기술해 놓고 있다. 그는 하이라얼(海拉爾), 만저우리(滿洲里), 싱안링(興安嶺) 등에서 나비채집을 한 후 사막지방의 나비를 채집하고 그 지역에서 사업하는 송도중학 제자 장경섭(張慶燮)을 만나기 위해 통랴오(通遼)에 들렀다. 그는 몽골에 대해서 잘 아는 장경섭과 몽골인 조금산(趙金山) 씨의 안내로 말을 타고 유량푸(餘糧堡) 지방을 삼사일 견학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몽골의 언어와 생활문화 등을 체험하게 되는데,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몽골인은 조선인과 용모와 언어에서 대단히 흡사한 점이 많다. 몽골인의 언어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 의미는 알 수 없으되 어조(語調)와 발음이 조선말과 틀림없다. 그 증거로는 몽골어를 배운 조선인은 몽골인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고, 조선어를 배운 몽골인은 조선인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까닭이다. 내가 본 한 몽골인이 조선어를 말하는 것을 들어도 어구(語句)의 수는 적을망정 이야기하는 말에 부자연스런 발음과 어조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먼저 그 알파벳의 일부를 들면 ‘아 어 이 오 우 으’ ‘가 거 기 고 구 그’ ‘나 너 니 노 누 느’ 등등 조선 한글형과 똑같다. 몽골의 알파벳이 조선 한글보다 더 긴 역사를 갖고 더 원시형이니 분명히 조선 한글은 몽골 것에서 유래한 것을 알 수 있다.

② 타인의 집에 갔을 때 하는 ‘문더(여러분 안녕하시오)’, ‘노해우제(개를 좀 보아주시오)’라는 인사말은 몽골인의 풍습을 잘 나타낸다. 타인의 집에 가서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개[犬]이다. 몽골개는 흉악하기 짹이 없어서 무심코 타인의 집에 접근하였다가는 큰일을 당한다. 몽골개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용서없이 달려드는 까닭이다.

③ 몽골인의 집에는 변소 시설이 없다. 그들은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매우 드문드문 흩어져 살면서 목축생활을 하기 때문에 변소가 필요 없다. 소변은 집 뜰에서 볼 수도 있어서 손님들에게도 불편이 별로 없다. 하지만 대변을 볼 때는 그 집 문을 출입할 때에 곤란을 느끼기 때문에, 손님인 경우는 반드시 그 집 아이라도 데리고 나가야 한다.

④ 몽골인의 먹거리는 주로 동물성인데, 양고기, 쇠고기, 양유, 우유 등이 있고, 유제품으로 치즈와 버터 등이 있다. 식물성 먹거리로는 기장쌀을 소기름으로 볶은 초미(炒米)가 있고, 채소는 별로 없으며, 소금은 많이 안 쓴다.

⑤ 연료로는 가축들의 똥을 건조시킨 훈피[糞皮]를 쓴다. 몽골인의 생활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전부가 목축에 의존하는 것이다.

⑥ 몽골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승마를 잘 한다. 한 사람이 초미와 치즈를 휴대하면 넉넉히 2개월간을 말 타고 야숙(野宿)하면서 여행할 수 있다고 한다. 몽골인의 승마자세를 보면 한쪽 엉덩이로 타는데, 보기에는 훌륭치 않고 쉽게 떨어질 듯도 싶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장시간 승마하려면 엉덩이를 좌우로 바꾸어서 타야 계속 탈 수 있고, 더구나 수렵시에는 달리면서 잡은 것들을 좁기에 편하다고 한다.

⑦ 몽골인은 목축생활에 의존하고, 목축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 욕심이 대단히 적다고 한다. 그들은 사람을 후하게 대하고 금전을 남용하는 경향조차도 있어서 하이라얼(海拉爾) 등지의 카페에서는 몽골인이 가장 환영받는다는 말조차 들었다. 몽골인은 목축생활을 하면서도 가죽을 무두질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이라얼 등지의 모피상들은 몽골인들과 물물교환으로 대단한 수입이 있다는 말도 있다.

⑧ 몽골인들은 현대문화에 뒤떨어져 있다. 하지만 그들은 만주국 서쪽 지역, 내몽골이나 성안령(興安嶺) 지나 후룬(呼倫)지방 같은 광야에 가장 적응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개척되는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⑨ 몽골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병과 악풍속과 그들의 생활에 깊게 침입한 술, 담배, 차[茶]의 과용에 대한 습성 등을 치료 혹은 교정하지 않으면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들이 즐겨하는 술, 담배, 차는 모두 기호품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용하지 말아야 하며, 더구나 그것들이 그 지방에서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 고려해봐야 한다(석주명, 1941b: 10-13).

몽골 언어나 풍습에 대한 석주명의 이러한 지식은 내몽골 동부 지역을 여행하면서 직접 목격하거나 장경첩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접한 몽골문화가 시기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몽골의 전통문화를 대표하거나 몽골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몽골인에 대한 석주명의 이해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우선 한국인과 몽골인은 용모가 흡사하다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한국인과 몽골인은 체질인류학적으로 비슷하여 얼굴과 몸매가 닮을 뿐만 아니라 갓난아기 엉덩이에 나타나는 ‘몽골반점’이 95% 이상 나타나는 민족은 몽골족, 만주족, 통구스족, 그리고 한민족뿐이다(고문자.김승환, 2007: 82). 그리고 한국어와 몽골어가 계통적으로 동북아시아어족으로 어조, 발음, 문법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최기호 편, 2012: 307–314). 그렇다고 해서 몽골 알파벳이 한글과 같다거나 몽골어가 한글보다 더 긴 역사를 갖고 더 원시형인 것으로 볼 때 한글은 몽골어에서 유래하였다는 석주명의 주장은 오류이다.

그리고 몽골개가 사납다는 그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몽골의 유목민들은 게르와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개가 필수적이다. 몽골개는 워낙 사나워서 개에게 물려 생명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노해우제(개 좀 보세요)’라는 인사말이 있게 되었고, 몽골인은 외출할 때는 개가 접근할 때 휘두를 채찍을 갖고 다닌다(김혜정, 2012: 162–163). 몽골에는 변소시설이 없다는 이야기도 석주명이 여행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면 사실에 가깝다. 몽골에는 ‘변소’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소변본다’는 표현을 남자의 경우 ‘말 보러 간다’, 여자의 경우 ‘말젖 짜러 간다’는 말로 에둘러 표현한다(김기선, 2008: 258–259). 그리고 몽골인은 주로 육식을 하고, 식물성 먹거리나 채소가 부족하며, 가축의 똥을 연료로 사용하고, 말을 대단히 잘 탄다는 이야기들은 최근 까지도 몽골 전역에서 통용된다.

당시 내몽골은 일본 관할에 있는 만주국에 편입되어 있었지만, 석주명은 그 지역의 넓은 평원들은 그 지역 몽골인들에 의해 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피지배민족의 아픔을 아는 식민지 학자의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몽골인은 물질적 욕심이 적어 인심이 후하고 어리숙하다거나 몽골인이 술, 담배, 차를 과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의 주장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3. 석주명의 몽골 이해의 한계

석주명은 일제강점기 나비 전문가였기 때문에 나비를 채집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

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 본토는 물론 당시 일본제국의 세력이 미치던 북중국, 북만주, 내몽골, 사할린, 대만 등지까지 여행을 할 수 있었다. 당시 내몽골 나비채집 여행은 일본 학술진흥회의 보조를 받고 이뤄졌지만, 그는 조선인의 입장에서 몽골의 풍습과 사회상을 「몽골인의 편상」에 기술하고 있다. 이 글은 몽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던 당시에, 우리 학자가 우리 글로 몽골의 풍습과 사회상을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석주명(1947a)은 일찍부터 국제어인 에스페란토를 교육하고 보급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고 해방 이후에는 『국제어 에스페란토 교과서 부(附) 소사전』을 펴냈다. 그리고 그는 나비채집을 하면서 지역이 달라지면 곤충분포와 방언분포가 달라지는 것을 알고, 방언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주도방언집』을 펴내기도 하였다. 그런 것으로 보아 그의 언어학에 대한 지식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몽골인과 한국인은 용모가 닮았고, 언어적으로 어조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몽골어를 배운 한국인은 몽골인처럼 이야기할 수 있고, 한국어를 배운 몽골인은 한국인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득력을 가진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몽골의 알파벳이 한글과 같고, 한글보다 더 긴 역사를 갖고 더 원시형인 것으로 보아 한글은 몽골어에서 유래했다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말과 몽골어가 모두 음소문자이고, 당시는 한글 창제원리를 밝힌 훈민정음 해례(解例)에 대한 연구가 없던 시절⁶⁾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그가 내몽골여행을 하던 당시의 몽골문자(몽골비칙)와 한글의 알파벳이 같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어떤 현상이나 풍습이 서로 비슷할 때 어느 하나가 다른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주장을 폐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몽골풍습이 우리풍습의 근원이라 주장하려면, 단순한 형태의 유사성만이 아니라 그 전래과정과 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 본다면 우리나라 베개와 몽골 베개가 다 같이 크고 높은 것으로 보아 우리 베개가 몽골에서 유래했다는 석주명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석주명은 몽골인들은 증식이 잘 되는 목축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질적 욕심이 적어서 사람들에게 후하게 대하고 금전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들다. 몽골인들이 드문드문 떨어져 살면서 겨울이 길고 추운 환경에서 목축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머나먼 길을 온 손님에게 접대를 잘 하고, 육식을 많이 하며, 마유, 양유, 우유 등으로 아이락(마유주)과 아르히(증류주) 등을 생산하여 일상에서 즐기는 것은 자연스런 풍

6) 훈민정음 해례본은 1940년 안동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그보다 훨씬 후에야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습이다. 그리고 몽골은 강우량 부족으로 채소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몽골인은 비타민C를 보충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차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다양한 차를 즐겨 마셔왔다(김혜정, 2012: 185–189). 몽골인에게 술과 차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식품에 가깝다. 그리 본다면, 몽골인들이 술과 차를 즐기는 문화를 악습으로 규정하는 평가는 그러한 문화가 있게 된 자연환경과 사회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것이다.

「몽골인의 편상」은 내몽골 동부 지역을 보름 남짓 여행했던 체험을 바탕으로 쓰인 것으로 문자 그대로 몽골인에 대한 단편적 생각이다. 몽골의 전통문화는 외몽골(몽골)과 내몽골(중국 내몽골자치구)을 아우르는 것이라야 한다면, 내몽골 동부지역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그의 몽골문화에 대한 이해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당시 석주명의 내몽골여행은 훗날 제주문화 속에 남은 몽골적 요소를 탐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는 석주명(1947b: 127)이 『제주도방언집』을 펴내면서 제주어 중에서 몽골어, 만주어, 중국어에 관계있는 것들을 뽑아낼 때 당시 내몽골에서 만났던 장경섭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는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III. 석주명이 본 제주문화 속의 몽골적 요소

1. 석주명이 본 제주도와 몽골 관계

석주명이 「몽골인의 편상」에서 “내몽골지방에서 견문한 것 중 별로 문헌에 보이지 않는 사실만을 약간 기록해보려 한다”고 기술하는 것을 볼 때, 1940년 내몽골여행 당시에도 몽골 관련문헌들을 어느 정도 읽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내몽골여행과 제주생활을 통해서 제주도와 몽골의 풍습들이 유사하는 점을 인지하고, 제주도의 언어, 종족, 풍습 등에서 몽골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게 되었다(1947b; 1968; 1971).

석주명은 제주도가 인류의 탄생지로부터 동방으로 향하는 3코스, 즉 북방코스(시베리아, 몽골, 만주, 한반도), 중국 중원코스(황하, 양자강 사이 중국 중원), 남방코스(아시아 남방해변, 태평양군도)의 말단에 위치해 있고, 예전부터 몽골, 한(漢), 왜(倭), 유구(琉球), 여송(呂宋) 등과 교류가 있다는 기록에 미루어 볼 때 제주도 종족은 여러 민족이 들어와 혼혈이 되었고(1968: 47), 이(李), 정(鄭), 조(趙), 강(姜), 장(張), 송(宋), 주(周), 진(秦), 석(石), 초(肖) 등 10성씨가 원에서 귀화하였으며(1968: 192), 좌(左)씨 등 일부 성씨들이 제주도가 원의 관할 아래 있을 때 목마관으로 왔던 사람의 자손일 가능성이 높

다고 주장한다(1968: 47). 그리고 그가 삼별초가 여몽연합군에 의해 진압된 후 고려와 몽골이 제주도를 지배하는 과정(석주명, 1968: 47, 72, 79), 제주도의 마정사(馬政使)와 제주도와 몽골의 관계사(석주명, 1968: 74-77)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는 것으로 볼 때, 제주도와 몽골에 대해 상당한 이해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석주명(1948)은 제주도는 외딴 섬이어서 일단 형성된 문화는 외래문화가 스며들 기회가 적고, 적정한 면적과 인구가 있어서 고유문화를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언어와 풍습 등을 잘 살펴보면 한국의 옛 모습 내지는 진정한 모습을 말해주는 자료가 많다고 보았다. 그가 제주도의 언어와 문화를 심도 있게 연구하려 했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말과 우리문화의 뿌리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석주명은 세계를 제패하던 대몽골(원)이 제주도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언어와 풍습이 몽골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확신한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 (1935~37년)에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를 연구했던 일본인 인류학자 이즈미 세이치(泉靖一)는 문화적으로 볼 때 몽골이 제주도에 미친 영향은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몽골의 유풍(遺風)으로 얘기되는 가죽옷이나 가죽신발은 몽골이 제주도를 지배하기 이전부터 제주인들이 착용하던 것이고, 마구(馬具), 연자매, 방사탑, 돌하르방, 마소몰이노래 등도 육지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몽골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이즈미 세이치, 2014: 53-54). 앞으로 제주문화를 보는 서로 다른 두 연구자의 관점을 비교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석주명은 1940년대 초에 몽골을 직접 현지답사하고 제주도에 살면서 연구한 결과 제주문화 속에 몽골의 요소들이 짙게 남아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가 몽골의 유풍이라 할 때, 몽골풍습은 대몽골(원)이 제주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13~14세기에 전해진 것이다. 그 시기는 몽골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에 몽골인들 스스로가 영광스러워하는 시기이다. 반면에 그가 내몽골 동부지역을 여행하면서 접한 풍습은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1940년의 것이고, 그가 접했던 제주문화 속의 몽골 유풍 역시 1943~45년의 것들이다.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제주문화 속에 남은 몽골적 요소들에 대해선 시공간적 간극을 고려하면서 검토해야 한다.

2. 석주명이 본 제주문화 속의 몽골의 유풍들

석주명은 1936년 8월에는 제주도를, 1940년 8월에는 내몽골 동부지방을 여행한 바 있고,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제주도 서귀포에 있던 경성제국대학 생약연구소 제

주도시험장에 근무하면서 제주도의 인문과 자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바 있다. 그러한 제주도와 몽골에 대한 직간접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는 제주도와 몽골의 공통점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모자(帽子), 의복(衣服), 신발[靴]에 모피(毛皮)를 사용하는 것.
- ② 목마(牧馬)가 성(盛)하고 말을 잘 몰고 부리는[驅使] 것.
- ③ 마구(馬具).
- ④ 말똥[馬糞]을 연료로 사용하는 풍습이 있다.
- ⑤ 가죽모자[皮帽]는 몽골모자[蒙古帽] 모양이다.
- ⑥ 밭이나 들[田野]에 있는 돌무더기는 몽골의 ‘오보’와 흡사하다.
- ⑦ 소, 말, 개[牛馬犬]의 귀를 절단하는 풍속.
- ⑧ 제견[濟犬]으로 사냥하는 것.
- ⑨ 바람으로 선곡(選穀)하는 방법.
- ⑩ 애기구덕[搖籃]도 몽골풍에 통하는 바가 있다.
- ⑪ 언어의 공통점(석주명, 1968: 90).

석주명은 이들을 몽골 유풍으로 보고 있지만,⁷⁾ 이 가운데는 몽골 유풍으로 보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의 부연 설명을 들어보면 잘못 해석하는 부분도 있다. 이를테면 그는 겨울철에 텁가죽으로 만든 모자, 짐승가죽으로 만든 옷과 버선 등을 착용하여 제주개[濟犬]로 사냥하는 것이 ‘따뜻한 나라인 제주도에 어울리지 않는’ 몽골로부터 전해진 풍습으로 보고 있다(석주명, 1968: 90). 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제주도의 해안지대(해발 200미터 미만), 중산간지대(해발 200~600미터), 산간지대(해발 600미터 이상)는 기온과 식생분포가 판이하게 다르다. 해안지대는 겨울에도 일평균 기온이 5°C 미만으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따뜻하지만, 목축이 이뤄지는 중산간 이상의 지역은 겨울에 눈이 많고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 그리고 중산간 지역에 사는 화전민과 사냥꾼들이 사냥하거나 테우리들이 소나 말을 돌보면서, 추울 때 노루, 오소리, 소, 개 등의 텁가죽 갑태(모자)를 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것이었다. 그리고 해안지역 사람들도 중산간과 고산지역에 방목하는 소나 말을 돌볼 때 추위를 막기 위해 가죽옷을 입었고, 눈 쌓인 한라산을 다닐 때 노루가죽이나 소가죽으로 만든 가죽발레(덧바지), 가죽버선, 가죽신 등을 착용했다(장애란, 2014: 187–197). 이것들이 몽골 유풍이라 하더라

7) 강영봉.서재철(2001: 228–236)은 대체로 석주명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몽골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주도가 얻은 것으로서, 목축법, 건축기술, 소똥연료, 차용어, 성씨도래, 봉수대 등을 들고 있다.

도 제주도의 독특한 환경에 필요했기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이지 ‘따뜻한 나라인 제주 섬에 어울리지 않는’ 풍습이라는 해석은 부적절하다. 그의 해석은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과 사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제주인들이 말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말을 잘 부리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특히 말테 우리나라 말을 이용하여 밭을 밟아야하는 농부들은 말을 잘 부렸다. 석주명(1968: 67)은 남녀를 불문하고 제주인들이 말을 잘 탄다는 사례로 1940년대 결혼식에 여자무당[女巫]이 말 타는 풍습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 전통혼례에서는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갈 때, 여자하인(하님)이 예장(禮狀)을 담은 홍세함[婚書函]을 등에 지고 말을 타서 함께 갔다(오문복, 2014: 410-423).⁸⁾ 이는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 제주인들이 말을 잘 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밭이나 들에 있는 돌무더기들이 겉모습만 보면 몽골의 ‘오보’와 흡사하지만 기능까지 유사한 것은 아니다. 제주도의 밭이나 들에 있는 돌무더기에는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밭 중앙 또는 한켠에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머들’이다. 머들은 노동력이 부족하여 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힘든 경우에 조성되거나 작백(담)과 같이 밭담이나 산담을 쌓을 때 이용하는 것으로(김유정, 2012: 50), 신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머들은 오보와 그 기능이 전혀 다르다. 다른 하나는 ‘거옥대’로 불리는 원뿔형 돌탑이다. 이는 마을의 액운을 막기 위한 방사탑(防邪塔)으로 돌이나 나무로 까마귀 부리나 사람 형상을 만들어 돌탑 꼭대기에 세워 허(虛)한 방향을 향하게 한다(김유정, 2012: 84-85, 331). 거옥대 중에는 성읍리 가마귀동산처럼 돌멩이를 올려놓거나 돌멩이를 뒤집어 놓으면 득남한다는 적석신앙(積石信仰)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고광민, 2006: 214-215), 대부분의 거옥대는 기복(祈福)보다는 벽사(闢邪)의 기능이 있다.

반면에 몽골의 ‘오보’는 일반적으로 돌무더기 한복판에 나뭇가지가 하늘을 향해 세워져 있고, 소원을 적어놓은 헝겊들이 매달려 있고, 가축 뼈들이 놓여 있는데, 몽골인들은 오보 주위를 돌면서 소원을 빌고 재물을 바치기도 한다. 오보는 만들어진 재료, 성격, 기능 등에 따라 다양하다. 이를테면 재료에 따라 돌오보, 나무오보, 흙오보 등이 있고, 종류에 따라 알탄오보, 길(고개)오보, 샘오보, 약수오보, 초원오보, 기념오보, 경계오보 등이 있으며, 성격에 따라 하늘오보, 인간오보, 대지오보 등이 있다.⁹⁾ 따라서 몽골인의 신앙터이면서 이정표 역할을 하는 오보는 제주도의 돌무더기인 머들이나 거옥대보다는 신당에 가깝다

8) 오문복 선생에 따르면, 여자하인[하님]은 때로는 여자무당[女巫]를 겸하기도 하였다.

9) 이안나(2014: 293-303)는 ‘오보’를 몽골어 발음을 살려서 ‘어워’라 부르고 있다. 여기서 알탄오보는 장대하고 위용있는 산에 세우는 오보를 말하며, 이 오보에서는 해마다 정해진 날짜에 제의를 드린다.

보아야 한다.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많기 때문에 선곡(選穀)을 할 때 바람을 이용한다. 제주인들은 바람 부는 날이면 동리 어귀나 모퉁이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과 직각으로 서서 곡물을 낙하시키면서 선곡하였다. 석주명(1968: 105)은 바람으로 선곡하는 제주풍습을 몽골식이라고 보았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바람 많은 섬에서 바람을 이용하여 선곡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지 굳이 몽골에서 유래를 찾을 필요는 없다.

제주도에는 유아용 요람으로 얘기구덕이 있다. 석주명(1968: 108)은 얘기구덕을 사용하면 바쁜 여자가 발로 흔들면서 일할 수 있고, 뱀이나 독충을 피할 수 있으며, 운반하기도 쉽고, 흔들리는 요람에서 자란 아이들은 훗날 벗멀미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한편, 몽골에도 목제와 은제로 된 요람들이 있고, 요람의 밑에는 반달 모양으로 된 두 개의 나무판이 붙어 있어서 잘 흔들리고, 아이들을 포대기에 넣고 흔들면 울지도 않고 잘 잔다. 그리고 몽골인은 요람에서 아이를 키우면 허리가 단정하고 다리도 곧게 자란다고 믿는다(박원길, 2005: 239). 석주명은 제주도의 얘기구덕과 몽골의 요람이 통하는 바가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석주명은 제주문화 속의 몽골적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첫 한국인이고, 그의 자료들은 제주도와 몽골의 풍습을 비교연구를 하는데 단초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비전공자로서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진위에 대한 보다 심층적 연구가 있어야 한다.

3. 석주명이 본 제주어 속의 몽골어 요소

석주명은 내몽골 여행 당시 만났던 송도중학 제자인 장경섭의 도움으로 그가 수집한 제주어 7,000여개 어휘 가운데 몽골어와 관계있는 240개 어휘를 뽑아내었다.¹⁰⁾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장경섭이 내몽골의 통랴오(通遼)에서 사업하고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석주명이 언급하는 몽골어는 1940년 당시 내몽골의 동부지역 언어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석주명은 생전에 발간된 『제주도방언집』에서 몽골의 영향을 받은 제주어휘 240개를 제시했지만, 유고집인 『제주도자료집』에서는 복합어이거나 중복되는 것들을 삭제하여

10) 석주명(1947b: 127-130)은 제주어와 관련있는 몽골어, 만주어, 중국어를 뽑는데 장경섭(張慶燮)과 조금일(趙金一)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장경섭은 「몽골인의 편상」에 등장하는 장경섭이 확실하지만, 조금일은 조금산(趙金山)과 동일인인지는 미상이다.

184개로 정리하였다(1971: 142–148).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석주명 본인이 직접 수정했는지, 유고집을 편집 교정했던 김교영이 띄어쓰기, 맞춤법 등에 맞게 고친다는 이유로 수정했는지는 분명치 않다.¹¹⁾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확인이 필요하다.

대몽골(원)은 13~14세기에 고려와 긴밀한 교류를 하였고, 제주도를 지배한 적이 있어서 우리말과 제주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석주명은 고어(古語)가 남아있는 제주어를 연구하면, 우리말의 옛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제주어를 수집하고 연구하였으며, 어원이 분명치 않은 제주어 어휘들 가운데 몽골어에서 유래한 것들을 찾으려 했다.

석주명은 말[馬]에 관한 말들은 몽골어와 만주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오쿠라 신페이(小倉進平)의 주장을 인용한다(석주명, 1947b: 131–132; 오쿠라 신페이, 2009: 630–631). 석주명은 말과 관련된 ‘가라물(검은말), 간전이(이마에 흰줄이 코까지 있는 말), 거울물(발목이 흰말), 고라물(회색말), 므쉬(가축), 물(말), 부인유마(황갈색말), 유마(갈색말), 적다물(赤多馬)’ 등이 몽골어에서 유래했다고 본다. 그리고 그는 ‘독고리낭(찔레나무), 맹마구리(맹꽁이), 볼레낭(볼레나무), 쇠왕이(엉겅퀴), 제완지(바랭이)’ 등 동식물명과 ‘고지(밭이랑), 골(엿기름), 구둠(먼지), 놀(폭풍), 늄빼(무), 늄싸움(여드름), 다슴[繼], 도금(언치), 마–(자–), 마농(파), 부랭이(수소), 북글래기(거품), 약돌기(망태기), 괴창(순대), 흐슬(건뜻)’ 등의 어휘도 몽골어에서 유래됐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제주지명 가운데 ‘가소름, 간드락, 눈미, 다그네, 도노미, 도래물, 떼미, 무두네, 서치무루, 술오름, 어승생, 오도롱, 죽성고다시, 항파두리’ 등을 몽골식 지명으로 보고 있다.

석주명은 전문 언어학자가 아니고, 당시 몽골어 관련 자문을 했던 장경섭과 조금일(趙金一) 역시 언어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하는 몽골어 차용어휘들 가운데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강영봉은 제주어 가운데 몽골어 차용어휘는 말[馬], 군사, 매(鷹) 등과 관련된 50~60여개에 불과하며(2012: 194–195), 서로 다른 두 언어에서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대응 없이 발음이 비슷하거나 뜻이 비슷하면 그 언어에서 유래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2012: 188).

석주명이 제시한 몽골어 차용어휘들의 진위 여부는 그것들이 전해진 시기와 지역을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석주명은 1940년대 초반에 사용되던 제주어와 동부 몽골어(정확히는 내몽골 동부 방언)의 유사성을 비교하였다. 하지만 제주도와 몽골 간에

11) 『제주도자료집』 원고는 1950년 6월에 탈고된 상태였지만, 한국전쟁으로 출간되지 못하다가 1971년 9월에야 유고집으로 나왔다. 유고집들의 자료는 석주선이 제공하였고, 석주명과 친하게 지냈던 에스페란티스토 김교영(金敎瑛)이 정리하고 교정하였다(김삼수, 1978: 207).

교류가 단절된 600여년 동안 두 지역의 언어도 많이 변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석주명이 제시했던 몽골어를 차용한 제주어휘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1940년대 몽골어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세몽골어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1940년대 제주어가 13~14세기 중세 제주어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1989년 제주도를 방문했던 몽골 언어학자 하칸출로(Hakanchulu)는 제주도의 몇몇 고유어들이 13세기 동몽골 방언의 변형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주도는 언어학적으로 13세기 동몽골 방언의 보고(寶庫)라고 말한 바 있다(박원길, 2005: 232~233). 따라서 제주어에 대한 몽골어의 영향과 제주지명의 몽골적 요소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려면, 중세국어와 중세몽골어, 중세제주어와 중세몽골어, 현대제주어와 현대몽골어 등을 비교하는 입체적 접근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어학자, 국어학자, 몽골어학자 간에 협동 연구가 필요하다.

석주명은 언어에 관련해서 비전문가였지만, 일제강점기에 제주어와 몽골어를 연구하면서 단순히 문헌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몽골과 제주도를 직접 답사하거나 거주하면서 우리말 고어(古語), 제주어, 몽골어의 관계를 조사하면서 제주어 가운데 몽골어 차용어휘를 찾으려 하였다. 석주명의 그러한 시도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범할 수 있는 여러 오류의 가능성을 김안하더라도 제주어와 우리말의 연구범위를 시공간적으로 13~14세기 몽골까지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V. 제주문화 속의 몽골적 요소들

1. 한·몽수교 이후 제주도와 몽골 연구

1990년 3월 한·몽수교가 이뤄지면서 몽골과의 교류가 600년만에 재개되었다. 그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제주도와 몽골의 언어, 역사, 음식, 민속, 풍습 등을 비교하는 연구자들도 늘고 있고, 1940년대 초반에 석주명이 시도했던 연구 성과들을 뛰어넘고 있다.

김혜정(2012)은 1980년 후반부터 몽골을 넘나들면서 우리나라, 특히 제주와 몽골의 유사점들을 인지하고 제주지역 신문인 『한라일보』에 연재한 후 『초원의 나라 몽골을 가다』를 펴낸 바 있다. 언어학 분야에서 강영봉(1996; 1999; 2007), 배영환(2016), 권성훈(2017) 등이 제주어와 몽골어의 관계를, 오창명(2002), 김기선(2003), 임도희(2016) 등이 제주도 지명의 몽골어 영향을 검토한 바 있다. 역사학 분야에서 김일우(2002; 2003;

2016)는 몽골의 제주지배가 시작되어 제주주민과 제주몽골족들이 더불어 살게 되면서 제주사회는 인구증가와 경제규모가 확대되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박원길(2005; 2013; 2015, 2019)과 이강한(2017)은 대몽골(원)의 세계지배 전략적 측면에서 제주도와 몽골 관계사를 조명하고 있으며, 전영준(2013)과 강만익(2016)은 탐라목장 운영과 목축문화 유입에 따른 제주사회의 변화를 논한 바 있다. 그리고 음식과 민속학 분야에서 오영주(2009; 2014), 장장식(2010), 이안나(2011) 등이 제주문화 속의 몽골적 요소를 탐색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전에 있었던 석주명의 연구보다 훨씬 진전된 것들이다.

제주문화 가운데 몽골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목축문화라 할 수 있다. 1276년 8월 코빌라이칸이 타라치(塔刺赤)를 탐라의 다루가치(達魯花赤)로 파견하여 제주도 동부 지역 수산평에 말 160마리를 방목한 이후 제주도는 대몽골(원)의 14개 주요 국영목장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몽골의 영향을 받은 목축문화는 말 사육방식뿐만 아니라, 민속, 음식, 의복 등 제주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목축과 관련된 제주어 어휘들 가운데 중세 몽골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박원길(2005: 228)은 ‘조랑말’이 몽골말의 한 주법(走法)인 ‘조리모르’에서, ‘태우리’는 ‘모으다’라는 뜻을 지닌 중세몽골어 ‘teuri’에서 비롯되었고, 제주인들이 숫말을 거세하고, 말의 코를 째는 습속은 질주할 때 숨을 편하게 쉬게 해주는 몽골의 습속에서 유래했다고 본다. 그리고 제주도 동부 오름에서 볼 수 있는 ‘피뿌리풀’도 방목하는 말들의 설사병을 치료하기 위해 몽골에서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강영봉, 서재철, 2001: 182–183; 박원길, 2005: 228–229). 그리고 가축의 똥을 말려 연료로 사용하고, 가축분뇨를 밭 가운데 모아 비료로 활용하는 ‘바령팟’도 결국은 말들을 많이 키우면서 생겨난 목축문화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전영준, 2013: 67).

한편, 몽골이 1273년 제주도를 직할령으로 삼으면서 몽골군인, 목호, 죄인, 목수 등이 제주도에 집단적으로 들어와 정착하였다. 그리고 원명(元明)이 교체되고 1374년 목호의 난이 진압된 후 명(明)은 1382년부터 1392년까지 운남 양왕(梁王)의 가속을 비롯한 몽골의 왕족과 관료들을 제주도로 유배시켰다(T. 테무르, 2017: 36).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8권 「제주목(濟州牧)」에 따르면, 원(元)에서 유입된 성씨로 ‘조(趙), 이(李), 석(石), 초(肖), 강(姜), 정(鄭), 장(張), 송(宋), 주(周), 진(秦)’ 등 10개가 있고, 운남에서 유입된 성씨로 ‘양(梁), 안(安), 강(姜), 대(對)’ 등이 있다. 그리고 제주지역 호적중초를 분석한 결과 그 이외에 ‘강(康), 좌(佐), 홍(洪), 서(徐), 차(車)’ 등도 대원(大元)을 본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전영준, 2013: 71). 이처럼 몽골인들이 제주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제주여성들과 통혼이 이뤄

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 두 지역 간의 혼인풍습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결혼 첫날밤 신랑집에서 보내는 풍습이 서로 비슷하고(박원길, 2005: 239–240), 제주도 ‘애기구덕’이 몽골 요람과 흡사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다.

오영주(2014: 20–31)는 음식분야에서 제주도 음식 가운데 몽골에서 전해졌거나 비교 가능한 것들로 순다리–아이락/타라크, 고소리술–아르키, 개역–참파, 둠베고기–오츠, 육회–타타르, 고기국수–쿠릴타이술, 수예–게데스, 상애떡–만도 등을 들고 있다. 이 외에도 돌하르방과 훈출로를 비교하는 이들도 있고(박원길, 2005: 229–231; 장정식, 2011: 98–100; 오영주, 2014: 34–42), 두 지역의 ‘돌신앙’(이안나, 2011)과 버드나무 민속(장정식, 2010)을 비교하는 이들도 있다.

제주도와 몽골은 13~14세기에 긴밀한 교류가 이뤄지다가 15세기 이후 600년간 교류가 단절되었다. 그동안 두 지역에 문화변동이 있었지만, 그 변화의 정도는 서로 달랐다. 몽골의 경우 15세기 이후에는 한족[明]과 만주족[清]의 지배를 받았고, 20세기에는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섰다. 그 과정에서 몽골인들이 자신들의 전통문화와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보는 13~14세기 몽골문화는 많이 변형되었다. 반면에 제주도의 경우는 17~19세기에 200년간 출륙금지령이 내려져 외부와 교류가 거의 끊임으로서 고유한 언어와 풍습이 보존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전통문화 속에 남아있는 몽골적 요소들 가운데는 오늘날 몽골 문화보다 13~14세기 몽골의 전통문화에 더 가까운 것이 있을 수도 있다.

2. 제주어 속의 몽골어 요소

몽골어가 제주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오큐라 신페이(小倉進平)가, 해방이후에는 석주명이 제주어와 몽골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제주어의 몽골어 차용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기문은 몽골어 차용어휘로 ‘가라(물), 가달(석), 간자(물), 고들개, 녹대, 부루(물), 사오리, 오랑, 절다(물), 지달(쓰다), 아랑주’ 등을 들고 있다(강영봉, 1999: 3–4). 그리고 강영봉은 제주어와 중세몽골어의 비교 연구를 통해, 제주어에서 ‘고렴[弔問], 고적[부조떡], 구덕[바구니], 도곰[땀치], 듄사리[며슴살이], 복닥[껍질/모자], 수룩[무리], 술[줄], 우룩맞추다[날짐승이]’ 서로 소리 질러 부르고 응하다], 주례[妣리], 허벅[물동이], 호랑[처마]’ 등 12개 어휘가 몽골어에서 차용된 것이고(1999: 5–15), 목축과 관련된 제주어 가운데 ‘가라물(털벗이 까만 말), 가

달석(재갈에 매인 고삐줄), 고들게친(껑거리끈), 고라물(털빛이 누런 말), 구렁물(털빛이 밤색인 말), 다간(두살 소), 부루물(털빛이 하얀 말), 적다물(털빛이 붉은 말), 지달(마소의 발을 동여매는 도구)' 등이 몽골어에서 차용된 것으로 본다(2007: 113–114).

1989년 제주도를 방문했던 몽골 언어학자 하칸출로는 제주어 가운데 ‘정낭, 흔저, 허벼, 누루못, 한라산, 어리목, 어승생, 어후오름, 사라오름, 오라동, 아라동, 산굼부리, 비바리, 냉바리’ 등이 몽골어와 관련 있다고 본다(박원길, 2005: 232–235). 그리고 김기선(2003: 219–227)도 ‘항파두리, 한라산, 어승생, 산굼부리, 어리목, 누루못’ 등을 몽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한편 ‘항파두리’ 지명과 관련해서 여전히 논란이 많다. 박원길(2005: 236–237)과 김기선(2008: 95–196) 등은 항파두리를 고려출신 몽골장군 홍다구(洪茶丘, 본명 洪俊奇)를 추증한 지명, ‘洪영웅’ 즉 ‘홍+Bagatur>Baatar’라고 하는데 반해, 오창명(2002)은 항파두리는 김통정이 제주도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고유이름으로 몽골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임도희(2016)는 김기선이 몽골어에서 차용되었다고 보는 ‘가시오름, 더데오름, 멜케, 모록밭, 무수내, 바리오름, 벼렝이, 아진오름, 알오름, 웃드르’ 등이 몽골어와는 상관없는 제주도의 고유지명임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라산, 산굼부리, 항파두리’ 등을 비롯해서 제주지명들 가운데 몽골어 차용어인지 제주 고유어인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어 연구자와 몽골어 연구자들 사이에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기호(2012: 314)는 한국어와 몽골어는 명사의 곡용과 동사의 활용 등 문법 요소들이 매우 유사하고, 문장 구성 순서나 토씨 등의 용법도 같은 것이 많으며, 음운론적으로도 모음조화 등 유사성이 많고 모음체계나 자음체계도 비슷하다고 본다. 그리고 대부분 연구자들이 한국어와 몽골어는 공통의 언어[祖語]에서 분화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어와 몽골어 사이에 비슷한 유사한 어휘가 있을 경우, 동원어(同源語)인지 차용어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배영환(2016)은 제주어와 몽골어의 관계를 ‘친족 관계와 언어 접촉에 따른 차용어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제주어에서 말[馬], 매[鷹鵰], 군사 관련용어에 몽골어 차용어가 80여개 집중되어 있지만, 음상만 비슷하다고 해서 차용된 어휘로 보려는 경향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주어 속의 몽골어 차용어들이 있다면 그것은 13~14세기에 전해진 몽골어일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제주어 가운데 몽골어 차용어는 600여년 동안 몽골어가 어떤 변화 과정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는 주요 자료이기 때문에 몽골어 음운사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권성훈, 2017). 제주어와 중세몽골어에 대한 비교연구는 우리말과 몽골어의 뿌리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3. 제주도와 몽골 관계 연구의 의의

1940년대 초에 수집된 석주명의 자료와 1990년 한·몽수교 이후 이뤄진 여러 학자들의 연구 성과들에 비춰 볼 때 제주문화 속에 몽골적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제주도에 전해진 몽골문화는 시기적으로는 13~14세기의 것이고, 지역적으로는 주로 동부 몽골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에 들어온 몽골 목자(牧子)들의 출신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록이 『고려사』에 있다. “명 황제가 고려 국왕에게 약재를 내려주었고, 친히 장자온 등에게 일러 말하기를, ‘... 이 탐라 목자(牧子)들은 원조(元朝)의 달달인(達達人)과 연계되어 본시 목양(牧養)을 업으로 삼고 별도로 농사를 지을 줄은 모른다. 또한 여러 해 동안 탐라에서 나고 자라 탐라 땅에 익숙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다...’”(『고려사』 제43권 – 「공민왕 21년」 9월 18일). 이 기록에 따르다면, 당시 몽골에서 제주도로 온 목자들은 동부 몽골에 살던 타타르인(Tatars)일 가능성이 높다.

동부 몽골 가운데도 다리강가 지역의 자연은 제주도와 대단히 흡사하여, “다리강가 지역의 기생화산들은 마치 제주의 오름을 보는 듯하다. 제주도와 몽골은 그 크기만 다를 뿐 펼치면 몽골이요, 축소하면 제주도다”(강영봉·서재철, 2001)라고 할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대몽골(원) 시절에 말과 목동들이 제주도로 갔다는 구전설화도 있고(박원길, 2005: 219–221), 2005년 다리강가 지역에서 발굴된 대몽골제국의 초기 분묘에서 출토된 목관의 재질이 제주도 녹나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박원길, 2005: 240). 그리고 제주어 가운데는 13세기 동몽골 방언의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박원길, 2005: 233). 그러한 점들에 비춰볼 때 제주도에 전해진 몽골문화는 13~14세기 동부 몽골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주도와 몽골의 교류가 단절된 600여 년 동안 두 지역의 전통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몽골의 전통문화는 1691년 할하몽골이 청(淸)에 복속되면서부터 변형되기 시작하였고, 1921년 소련의 지원으로 사회주의가 도입되면서 더욱더 급격하게 파괴되었다. 제주도 역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전통문화가 훼손되고, 그 과정에서 제주문화 속의 몽골적 요소들도 많이 변형되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제주도에는 17~19세기 200년 동안 출륙금지령 때문에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단절됨으로서 전통적 언어, 민속, 습속 등이 비교적 잘 보전될 수 있었다. 그리 본다면 제주도와 몽골의 교류가 단절된 600여 년 동안 몽골에 비해 제주도의 문화변형이 더 적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제주도의 전통문화는 13~14세기 대몽골(원)의 전통문화가 숨겨진 타임캡슐일 수도 있다.

제주도와 몽골이 교류하던 당시는 몽골 고유의 전통문화가 형성되고 유지되던 영광스런 시기였고, 몽골인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시기이다. 하지만 그 이후 몽골이 한족인 명(明)과 민족적인 청(淸)의 지배를 받으면서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파괴되었고, 20세기에는 소련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면서 몽골의 진보적 지식인, 애국자, 승려들이 탄압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1989년부터 몽골에 자유화와 개방화가 시작되면서 몽골의 지식인들은 그동안 부정되고 잊혔던 과거를 재구성하고 몽골인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려 하고 있다(박환영, 2008: 25~49).

제주도의 전통문화 속에 들어 있는 몽골적 요소들은 오늘날 몽골인들이 재구성하려는 과거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제주문화 속의 몽골적 요소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600년이라는 시간적 간극뿐만 아니라, 역사상 넓은 지역(3,320만 평방킬로미터)을 지배했던 대몽골(원)제국과 그에 비하면 작은 점(1,848 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한 탐라(제주)라는 공간적 간극을 넘어서야 한다. 따라서 오늘날 제주문화와 몽골문화 사이에 유사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몽골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결론내리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제주문화 속에 남아있는 몽골적 요소들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제주도의 전통문화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몽골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작업은 그동안 많이 변형되었다고 여겨지는 몽골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복원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제주문화 속에 남겨진 몽골적 요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역사학, 언어학, 민속학, 인류학 등의 학제적 연구와 우리나라와 몽골 학자들 간의 협동연구가 절실하다.

V. 맷음말

제주도는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늘 주변 강대국들의 눈독을 들이는 곳이다. 13~14세기에 세계를 제패하던 대몽골(원)제국은 탐라를 14개 국영목장 중 하나이면서, 남송과 일본으로 진출하기 위한 주요한 해상 교두보로 삼았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의 언어, 풍습, 성씨, 민속, 음식, 의복 등에서 몽골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특히 제주마, 태우리, 잣성 등의 목축문화 유산들과 그 후에 생겨난 10소장이니 고수목마(古藪牧馬)니 하는 용어들도 결국 멀리 본다면 몽골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元)이 명(明)에 의해 패망하고 몽골 지배층들이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유배된 후부터 600여 년간 닫혔던 문호가 다시 열리게 된 것은 1990년 3월 한·몽수교가 이뤄지면서부터이다. 그 이후 제주도의 언어, 풍습, 민속 등에 몽골이 미친 영향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석주명은 한·몽수교 50년 전인 1940년에 내몽골 동부지역에서 나비채집여행을 한 후, 이듬해에 「몽골인의 편상」에서 수백 년 동안 잊혔던 몽골문화를 우리나라에 알렸다. 이 글은 나중에 석주명이 제주도의 언어와 풍습에 남은 몽골적 요소들을 연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석주명은 1936년 여름에 한 달 남짓 제주도에서 나비채집 여행을 한 후 제주도의 이국적인 자연과 문화에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 후 1943년 4월부터 2년 동안 서귀포시 토흥동에 있는 경성제국대학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에서 근무하면서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제주도의 언어와 풍습 속에 남은 몽골적 요소들은 탐색하였다. 그는 제주도와 몽골을 직접 현지답사하고 두 지역의 언어와 풍습을 비교연구한 시도한 근대 이후 첫 한국인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의 전통문화 속에 몽골적 요소들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13~14세기 몽골문화의 흔적들이다. 그에 대한 탐구는 600여 년의 역사적 간극을 뛰어넘고, 당시 세계대제국인 대몽골(원)과 그에 비하면 작은 점에 불과한 탐라(제주)의 간극을 넘어서야 가능한 작업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간극들이 있기에 제주도의 전통문화 속에 남아있는 몽골적 요소들을 탐색하는 의미는 더 크다.

15세기 이후 몽골은 명(明), 청(淸), 소련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전통과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던 13~14세기 몽골문화는 많이 소멸되거나 변형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17~19세기에 내려진 출륙금지령으로 외부와 문화교류가 끊김으로서 고유한 문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전통문화는 잊어버린 13~14세기 몽골문화의 원형과 정체성을 찾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와 몽골의 언어와 풍습을 비교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몽골자료가 기준이 되어 그 진위여부가 평가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주어와 제주풍습을 기초로 하여 중세몽골어와 몽골의 전통문화를 탐색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와 몽골의 언어와 전통문화를 연구할 때 그 기준을 몽골에서 제주도로 이동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 석주명이 제주문화 속의 몽골적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 『제주도방언집』, 『제주도수필』, 『제주도자료집』은 주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석주명은 전문 사회학자나 인류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주도와 몽골에 대한 글에서

오류들도 있다. 하지만 그의 자료들은 몽골과 제주도를 직접 답사하거나 거주하고 난 후에 남긴 것들이기에 가치가 있다. 석주명이 남긴 제주문화 속의 몽골 유풍들에 대한 자료들은 최종자료가 아니라, 제주도와 몽골의 전통문화와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그리고 제주도 전통문화 속에 남아있는 몽골적 요소를 탐색하는 작업은 제주인에게는 제주문화의 형성과정과 그 뿌리를 이해하는 중요 자료를 제공해줄 것이고, 몽골인에게는 잃어버리고 잊힌 그들의 전통문화의 원형과 정체성을 찾는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민익, 2016, 「고려말 탐라목장의 운영과 영향」, 『탐라문화』 52, 67–103.

강영봉, 1996, 「제주도와 몽골」, 『한몽골교류천년』, 한몽골교류협회.

_____, 1999, 「제주어와 중세몽골어 비교연구」, 『탐라문화』 20, 1–16.

_____, 2007, 「몽골어와 제주어」, 국립제주박물관편, 『몽골의 역사와 문화』, 서경문화사.

_____, 2012, 「석주명의 제주어 연구의 의의와 과제」,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강영봉.서재철, 2001, 『몽골, 몽골사람』, 한국몽골연구회.

강돌가 외, 2009, 『몽골의 역사』, 김장구 이평래 옮김, 동북아역사재단.

고광민, 2006,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고문자.김승환, 2007, 「몽골역사와 몽골어가 제주방언에 끼친 영향」, 『한국어정보학회 국제학술대회』; 한.몽.중.러.일 5개국 제28차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어정보학회, 76–83.

고문자.박경윤, 「몽골이 제주방언과 문화에 끼친 영향」, 『한국어정보학』 9:1, 17–20.

권성훈, 2017, 「제주방언 속의 몽골어 차용어」, 『동악어문학』 70, 53–67.

김기선, 2003, 「몽골비사의 알타이적 지명요소와 관련 한국(제주도) 및 대마도 지명 연구」, 『몽골학』 14, 2003, 215–237.

_____, 2008, 『한몽문화교류사』, 민속원.

김삼수, 1976, 『한국의 에스페란토운동사』,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김유정, 2012, 『제주의 돌문화』, 서귀포문화원.

김일우, 2002, 「고려후기 제주 법화사의 중창과 그 위상」, 『한국사연구』 119, 29–56.

_____, 2003, 「고려후기 제주.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 15, 45–74.

_____, 2016, 「몽골황제 순제의 제주 피난궁 터 탐색」, 『몽골학』 46, 27–61.

김혜정, 2012, 『초원의 나라 몽골을 가다』, 태학사.

박원길, 2005, 「제주 습속 중의 몽골적 요소」, 『제주도연구』 28, 215–246.

_____, 2013, 「영락제와 제주도」, 『제주도연구』 40, 1–48.

_____, 2015, 「대몽골(원)제국 시대의 양마법(養馬法)과 기마장비」, 『제주도연구』 43, 1–88.

박환영, 2008, 『몽골의 전통과 민속보기』, 박이정.

배영환, 2016, 「제주방언 속의 몽골어 차용어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어문논집』 68, 7–36.

석주명, 1941b, 「蒙古人の 片想」, 『博文』 4:1, 10–13.

_____, 1947a, 『국제어 에스페란토 교과서 부(附) 소사전』, 조선에스페란토학회.

_____, 1947b, 『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사.

_____, 1948, 「朝鮮의 姿態」, 『濟州新報』, 1948년 2월 6일자.

_____, 1968, 『濟州島隨筆-濟州島의 自然과 人文』, 보진재.

_____, 1971, 『濟州島資料集』, 보진재.

양혜숙.박원길, 2019, 「몽골사에서 탐라의 가치」, 『제주도연구』 51, 5–52.

여운형, 1936, 「나의 回想記」 1-5편, 『중앙』 3-7월호, 조선중앙일보사.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 2009, 이진호 역주, 『한국어방언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오문복, 2014, 「관혼상제」, 『제주생활문화100년』, 제주문화원, 408-489.

오미영, 2016, 「여운형의 <몽골여행기>에 나타난 한·몽 교류사적 의미」, 『몽골학』 46, 63-102.

오영주, 2009, 「동아시아 속의 발효음식문화」, 『제주도연구』 32, 157-203.

_____, 2014, 「제주-몽골 학술문화교류를 위한 ‘탐라 몽골학’ 기반조성 노력」, 『2014년 심포지움자료집』, 제주학회, 5-81.

오창명, 2002, 「제주의 항몽유적지 관련 지명」,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기본정비 계획용역』,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윤용택, 2012, 「석주명의 제주학 연구의 의의」, 윤용택 외, 『학문·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탐라문화연구소, 289-330.

이강한, 2017,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탐라(제주)’정책」, 『한국학논총』 48, 73-123.

이안나, 2011, 「제주와 몽골의 ‘돌 신앙’」, 『한민족문화연구』 37, 255-288.

_____, 2014, 『몽골의 생활과 전통』, 민속원.

이즈미 세이치(泉靖一), 2014, 『제주도(1966)』, 김종철 옮김, 여름언덕.

임도희, 2016, 「제주도의 지명 일연구-중세몽골어와의 개연성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33, 영주어문화회, 23-43.

장애란, 2014, 「의생활」, 『제주생활문화 100년』, 제주문화원, 160-219.

장장식, 2010, 「문화비교로 본 제주와 몽골의 민속」, 『동아시아문화와예술』 7, 35-65.

전경수, 2019, 「石宙明의 野學과 鹿兒島高等農林學校의 教育課程」, 『근대서지』 19, 449-497.

전영준, 2013, 「13~14세기 元 목축문화의 유입에 따른 제주사회변화」, 『제주도연구』 40, 49-78.

제주특별자치도, 2008, 『제주도문화상징』, 제주문화예술재단.

최기호 편, 2012, 『몽골어 문법과 회화』, 동광출판사.

T. 테무르, 2017, 「명초(明初) 유배지로서 탐라」, 『제주도연구』 48, 27-48.

石宙明, 1937a, 「濟州島産蝶類採集記」, *Zephyrus* 7:2/3, 150-174.

_____, 1937b, 「濟州島の思ひ出」, 『地理學研究』 14:5, 25-27.

_____, 1939a, 「滿洲産蝶類目錄」, 『動物學雜誌』 51, 773-776.

_____, 1939b, 「支那及び蒙古産蝶類の新產地」, 『動物學雜誌』 51, 658.

_____, 1941a, 「冠帽連峰産蝶類採集記」, *Zephyrus* 9:2, 103-11.

_____, 1941c, 「興安嶺, 滿洲里及び海拉爾の蝶類(一新亞種の記載を含む)」, 『滿洲生物學會會報』 4:2, 63-7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려사』 제43권-「공민왕 21년」 9월
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r&types=r#detail-kingYear/kr_043r_0020_0090_0050/33/1372/09 에서 2020. 1. 10 인출.

Abstract

A Reconsideration on the Mongolian Elements in Jeju Culture
that Seok Joo-Myung found

Yoon, Yong-Taek*

Jeju Island was dominated by the Mongolian Empire in the 13th~14th centuries. Therefore, Mongolian elements remain in the language and customs of Jeju Island. However, for 600 years from the 15th century, Jeju and Mongolia were completely disconnected. In the meantime, there were cultural changes in both regions due to political changes. In 1990,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began again as diplomatic relations normalized between Korea and Mongolia. Since then, research achievements have been accumulating on the influence of Mongolia on Jeju culture.

Seok Joo-Myung (1908~1950), famous for butterfly expert, traveled to eastern Inner Mongolia in the early 1940s, and lived and studied in Jeju Island for two years. He has studied and compared the languages and customs of the two regions. He is the first Korean since modern times to study and focus on Mongolian elements in Jeju's traditional culture. However, because he was not a professional human sociologist or anthropologist, there are some errors in the statements concerning Jeju and Mongolia. Nevertheless, the data left by Seok Joo-Myung are basic data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compare and study the language and customs of Jeju Island and Mongolia.

If Mongolian elements remain in the traditional culture of Jeju Island, it will be a trace of Mongolian culture in the 13th~14th centuries. And if we can confirm it, it will be an important data to understand the formation process of Jeju culture for Jeju people, and it will be a material to contribute to restoring the forgotten traditional culture and identity of Mongolia for Mongolians.

Key Words : Jeju Island, Mongolia, Jeju Dialect, Mongolian, Jeju Culture, Mongolian Elements.

*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Jeju National University

석주명이 본 제주문화 속의 몽골적 요소에 대한 재검토

교신 : 윤용택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인문대학 철학과
(E-mail: sumsaram@jejunu.ac.kr)

논문투고일 : 2020. 01. 14

심사완료일 : 2020. 02. 10

게재확정일 : 2020. 02. 11